

##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장성길\*

### 1. 들어가는 말

본 논고는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Biblical Hebrew Verbal System)가 갖는 양태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 유형론(morphology)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사 체계의 이해는 시제(tense), 상(aspect) 그리고 양태(modality)라는 세 가지 문법적 범주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1)</sup> 그렇다면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연구의 경향은 어떠한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보면 대체로 동사의 시제나 상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양태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양태 개념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려는 발화 의도(speaker's intention)를 찾는 데 있어서 해석자에게 유효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시제와 상 이론까지 포함시켜 논의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시제와 상 이론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리로 만족하고 본 논고에서는 양태 개념이 어떠한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시제 · 상 · 양태의 개념

---

\* University of Surrey-Roehampton (UK)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신학 부교수. [gracesgiang@naver.com](mailto:gracesgiang@naver.com). 본 논문은 2016년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1) J. L. Bybee, R. Perkins, and W.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S. D. Bhat, *The Prominence of Tense, Aspect, and Moo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9); H. Reichenbach, *Elements of Symbolic Logic* (London: Collier-Macmillan, 1948); J.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304-317; B. Comrie,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B. Comrie,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Ö. Dahl, ed.,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 of Europe* (Berlin: Moulton de Gruyter, 2000).

## 2.1. 시제(Tense) 개념

시제는 시간과 관련 있는 문법적 범주으로써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 또는 문법적 장치이다.<sup>2)</sup> 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라이온스(J. Lyons)는 시간상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라고 정의하였다.<sup>3)</sup> 라이온스가 말한 대로 시제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지시적(deictic)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일반적으로 시제의 분석은 준거점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구분하게 된다. 콤리(B. Comrie)의 가설에 따르면, 절대적 시제란 준거점이 화자가 말하는 현재의 발화 순간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는데,<sup>5)</sup>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시간 관계를 가리킨다.<sup>6)</sup> 반면에 상대적 시제는 기준점이 발화시점과 다른 경우를 말하며, 가장 많이 적용하는 상대 시제의 체계는 제스퍼슨(Jespersen)의 도식을 보완한 라이헨바흐(H. Reichenbach)의 세 가지 상대 시점(발화시[S]: the point of speech; 사건시[E]: the point of the event; 기준시[R]: reference time)을 가설로 활용하고 있다.<sup>7)</sup>

## 2.2. 상(Aspect) 개념

다음으로 상(Aspect)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은 동사에 관한 문법적 범주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 동작이나 사건이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지 그 동작의 성격을 파악해 내는 문법적 장치이다.<sup>8)</sup> 상은 시간의 내부 구조를 일컫는 말로써 이효상은 이러한 정의를 시간적 차원의 상-구조라고 말하였다.<sup>9)</sup> 볼프강 클

2) 윤병달, 『언어의 의미』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 372-374. 시간(time)은 역동적이며 비언어적 개념에 속하는 반면 시제는 언어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시간과 시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참조하라. 김정오, “영어의 시제와 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3 (2013), 503.

3) J.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305.

4) J. Lyons,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677.

5) B. Comrie, *Tense*, 9-14. 여기서 기준 시점이란 추상적 시간으로서 발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화자 자신이 인식하는 시점을 가리킨다.

6) 볼프강 클라인, 『언어와 시간』, 신수송 역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1), 209.

7) H. Reichenbach, *Elements of Symbolic Logic*, 287-298.

8) 민현식,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시제, 상, 서법의 3차원 해석론”, 『국어교육』 69 (1999), 19-23;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12), 396-397.

9) 이효상,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1995), 222-225.

라인(W, Klein)에 따르면, 상은 주제 시간(topic time)과 상황 시간(time of situation) 간의 관계에 의해 규명된다고 주장한다.<sup>10)</sup> 따라서 상은 특정한 시점과는 관련이 없는 시간 자체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문법적 장치이다.

한편, ‘상’은 관점에 있어서 화자와 관련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sup>11)</su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자 또는 화자에 의해 진술되는 사건의 관찰 방식 또는 관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동사의 상이란 “어떤 문장(명제)이 담고 있는 사건(상황)이 시작, 진행, 완결 등과 관련하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언어적/문법적 기제”라고 설명된다.<sup>12)</sup> 라이온스는 상을 완결상(complete: 기준시가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에 해당함)과 미완결상(기준시가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의 대립적 관계로 보았다.<sup>13)</sup> 하지만 시제와 상의 언어적 특성을 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언어가 동일한 수준의 시제나 상 또는 양태의 문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교 언어학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은 개별 언어들의 동사의 특성에 따라 시제 체계가 현저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 역으로 상의 체계가 발달된 언어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제 또는 상의 현저성을 나타내고 있는 언어들 간에 원문을 번역하거나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원천 언어뿐 아니라 목적 언어가 지닌 동사 체계의 현저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어의 경우, 다른 로만스어와 유사하게 3분 체계(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시제중심의 언어군에 속한다.<sup>14)</sup> 그러나 현대 러시아어의 경우, 허성태와 임홍수의 주장에 따르면, 형태상으로 볼 때 러시아어는 완결상/미완결상의 2분 체계의 상과 과거/비과거의 2분 체계의 시제로 구분된다.<sup>15)</sup> 반면에 중국어의 경우,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잘 발

10) 볼프강 클라인, 『언어와 시간』, 174-176.

11) 조경화, 송경안, “독일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103.

12) Ibid., 19. B. Comrie, *Aspect*, 52-56; 비교적 최근에 하이네(Heine)의 분석에 따르면 상의 하위 범주는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최소 11가지의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J. Lyons, *Theoretical Linguistics*, 313.

14) 이숙현, 심음식, “프랑스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115-127. 박진호에 따르면 중세 프랑스어는 현재 시제에서는 상의 구별이 없다고 보았다. 참조하라. 박진호, “시제, 상, 양태”, 유현경 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과주: 태학사, 2011), 307.

15) 허성태, 임홍수, “러시아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140-151.

달해있지 않은 관계로 통상 ‘무-시제’ 언어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6)</sup> 따라서 중국어는 시제보다 상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언어라 말할 수 있으며, 문법 표지가 발달해 있지 않은 고립어로 분류하게 된다. 한편, 아랍어의 경우를 보면,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나 표지는 없으나 동작과 상태를 완료 동사와 미완료 동사로 구분하고 있어서 상 중심의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sup>17)</sup> 이처럼 개별 언어의 동사 체계의 특성에 따라 시제 또는 상 중심의 특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 2.3. 양태(Modality) 개념

마지막으로 양태<sup>18)</sup> 개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상기한 대로, 시제나 상의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 시간 체계와 연관이 있음을 보았다. 반면에 양태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subjective attitudes and opinions)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 장치를 말한다.<sup>19)</sup> 박진호는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또는 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양태는 사고의 영역을 반영하는 범주로서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를 표현하는 문법적 범주에 속한다.<sup>21)</sup>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양태란 발화 행위(speech act)를 통해 선포된 명제 내용에 대하여 그것의 실현 가능성(possibility), 확실성(certainty) 그리고 필연성(necessity)의 정도를 나타내는

16) 이상도, 『중국어 문법』 (서울: 동방미디어, 1997). 중국어의 경우 상(aspect)을 표시할 수 있는 문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의 표지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제조사 - 了[표: le], 着[착: zhāo], 過[과: guō]가 쓰이며, 진행상을 나타내는 조동사 在 [재: zài]가 사용되고 있다. 참조하라. 안기섭, 송진희, “중국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80-90.

17) W. M. Thackston, *An Introduction to Koranic and Classical Arabic* (Maryland: IBEX Publishers, 1994); 정규영, “아랍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154-161.

18) 국내 언어학계에서는 아직도 modality라는 용어가 서법, 양태 또는 양상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modality를 ‘양태’로 표기하였으나 어법상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학자들 간의 용어상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19) J. L. Bybee, D. R. Perkins, and W.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176; Rainer Dietrich, 『독일어에서의 양태성』, 권영숙 역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0), 16.

20) 박진호, 『시제, 상, 양태』, 310.

21) 이정, “서법의 정의와 분류”, 『말』 3 (1978), 82. 윤병달에 따르면, 양태란 말하려는 명제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나 지식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것이다(참조. 윤병달, 『언어의 의미』, 416.).

언어적 장치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양태 개념이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문법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19세기 이전에도 이러한 개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양태의 범주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은 양태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쓴다. (1) 명제의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지 양태** (epistemic modality)와 (2) 의무 필요, 능력 또는 허용 등을 나타내는 **의무 또는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로 구분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범주만으로 동사가 지닌 다양한 양태적 속성을 모두 표현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팔머(F. R. Palmer)는 양태의 속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sup>22)</sup>

1. 명제적 양태(propositional modality)
  - a. 증거적 양태(evidential modality)
  - b. 인지적 양태(epistemic modality)
2. 사건 양태(event modality)
  - a. 의무론적 양태(deontic modality)
  - b. 역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여기서 명제적 양태란 화자가 진술하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 또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건 양태는 당위적 세계에 대한 동작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sup>23)</sup> 그리고 인지적 양태는 명제의 사실성(또는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증거적 양태에는 명제를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증거적 양태와 인지적 양태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증거적 양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지적 양태만을 쓰기도 한다. 비베(J. L. Bybee)의 경우가 그러한데, 인지적 양태 속에 가능성, 개연성, 추론에 근거한 확실성, 반사실, 또는 증거법(evidentiality) 등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sup>24)</sup>

다음으로 사건 양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 팔머는 의무론적(deontic) 양태와 역동적(dynamic) 양태를 사건 양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 두 가지 범주 간의 차이는 단지 조건의 변수가 다르다는데 있다. 이기갑은 의무론적(당위) 양태는 조건의 변수가 발화자의 외부에 존재해 있다고 보았

22) F. R. Palmer, *Mood and Modality*, 24-85.

23) Ibid., 24; 윤병달, 『언어의 의미』, 416-417.

24) J. L. Bybee, D. R. Perkins, and W.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176-178.

고, 역동적 양태는 행위자의 내부에 있다고 가정한다.<sup>25)</sup>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서의 인지 양태가 정보의 전달 또는 상황에 대한 표현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면, 의무론적 양태는 청자가 수행해야 할 동작 (action)을 부과하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의무론적 양태는 그 속성상 화용론적 (pragmatics)이다. 이러한 양태 범주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비베(Bybee)의 분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베는 팔머와는 다른 방식으로 4가지 양태 범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sup>27)</sup>

1. 화자 중심의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
2. 동작주 중심의 양태(agent-oriented modality)
3. 인지 양태(epistemic modality)
4. 종속적 서법(subordinating moods)

비베의 양태 범주에 따르면, 양태는 화자 중심의 개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양태처럼 동작주 중심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sup>28)</sup> 여기서 비베가 말하는 동작은 곧 행위자가 수행해야 할 내·외적 조건(예를 들면, 의무, 필요, 능력, 욕망)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주 중심의 문장이 전달하는 정보 내용은 행위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다. 따라서 비베의 양태 체계에서 말하는 동작주 중심의 양태란 팔머의 범주에 비추어 설명하면 의무론적 양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베의 체계에서 화자 지향적 양태란 화자가 청자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금지 또는 기원이나 권고, 그리고 경고와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팔머의 범주에서는 의무론적 양태에 비유될 수 있다.<sup>29)</sup>

그렇다면, 현대어에서 양태 개념은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한국어의 경우, 조동사가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르 것이다, -르 수 있다’ 등으로 표현된다.<sup>30)</sup> 이견환에 따르면 한국어의 양태 개념은 보조 용언이나, ‘-겠-’ 또는 ‘-더-’와 같은 선어말어

25) 이기갑, “양상의 유형론”,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183.

26) 윤병달, 『언어의 의미』, 427.

27) J. L. Bybee, D. R. Perkins, and W.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177-181; J. Bybee,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28) 박진호, 『시제, 상, 양태』, 311.

29) J. L. Bybee, D. R. Perkins, and W. Pagliuca, *Evolution of Grammar*, 249-250.

30) 이견환, “한국어의 양상표현”,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207.

미나 양태 부사(형용사) 또는 양태 동사 등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한다.<sup>31)</sup> 반면에, 영어와 게르만어는 서법 조동사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해 있는 언어군에 속한다. 영어에 있어서 시제와 양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미래 시제가 특히 그러하다. 반면, 독일어의 경우는 *dürfen*, *können*, *mögen*, *müssen*과 같은 서법 조동사나, *möglich* (possible), *notwendig* (necessary) 등의 서법 형용사 등으로 양태를 표현할 수 있다.<sup>32)</sup> 프랑스어 역시 *pouvoir* (can/may), *devoir* (must) 등과 같은 양태 보조동사나 *certainement* (certainly)와 같은 양태 부사 그리고 *certain*, *obligatoire* (obligatory)과 같은 양태 형용사와 종속절을 통해 양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sup>33)</sup> 그렇다면 이러한 양태의 문법적 특성을 성경 히브리어 분석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태 개념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성경 히브리어의 양태 개념의 특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자 한다.

### 3.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개념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시상(시제와 상)은 *qatal*(접미동사)와 *yiqtol*(접두동사)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바브 도치(또는 연속)법으로 명명되고 있는 *waw-consecutive imperfect* (*wayyiqtol*)와 *waw-consecutive perfect* (*weqatal*) 그리고 순수 접속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waw-copulative* 형태가 쓰인다. 맥폴(L. McFall)에 따르면, 19세기 이전의 히브리 동사 체계의 이해는 시제 중심이었다고 분석한다.<sup>34)</sup> 그런데 19세기 이후 상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이후에 출간된 히브리어 구문론 및 문법서들은 상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sup>35)</sup> 반면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 언어학계에 점차 양태(modality)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계기로 90년대 이후 성경 언어학 분야에서도 양태 의미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31) Ibid., 208-210.

32) 조경화, 송경안, “독일어의 양상표현”, 248-254.

33) 이숙현, 심을식, “프랑스어 양상표현”,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260-265.

34)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Almond Press, 1982).

35) H. Ewald,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James Kennedy, trans. (Edinburgh: T&T Clark, 1879).

## 3.1.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적 범주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언어체계는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가? 성경 히브리어의 시제·상·양태의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이슈화가 된 주제가 아니라, 일찍이 드라이버의 상 이론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드라이버는 jussive와 cohortative 형태에 양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sup>36)</sup> 한편 90년대 이후,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예를 들면, 요스텐[J. Joosten], 헨델[R. S. Hendel], 하타브[G. Hatav], 앤드라슨[A. Andrason] 등)은 양태적 개념과 *yiqtol* 및 *weqatal* 형태의 기능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아왔다. 요스텐에 따르면, 히브리어 동사는 직설법(indicative) 동사와 양태(modality) 동사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sup>37)</sup>

INDICATIVE	MODAL
non-volitive	volitive
<i>qatal, wayyiqtol, participle</i>	<i>yiqtol, weqatal</i> jussive, imperative, cohortative

## &lt;Joosten의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시제-양태 모델&gt;

요스텐의 가설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은 *qatal/wayyiqtol/qotel*을 직설법으로 분류하였고, *yiqtol*과 *weqatal*은 비의지적 양태 동사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특별히 *yiqtol* 동사와 관련하여 그것의 고유한 기능을 예견적(prospective), 지속적(durative) 그리고 양태(modality) 의미로 설명한다.<sup>38)</sup> 한편, 기안토(A. Gianto)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 가운데 perfect (*qatal*)와 imperfect (*yiqtol*), imperative, jussive, and cohortative가 어떻게 양태성 개념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가설을 제시하였다.<sup>39)</sup> 다양한 양태의 범주들 가운데 기안토는 특별히 히브리어 동사를 인지(epistemic)와 의무(deontic)라는 두 가지 양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별히 기안토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접미동사(*qatal*)가 선언적(또는 단언적) 인지 양태 또는 간청이나 능력을

36) S. R. Driver,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60-64.37) J. Joosten, "The Long Form of the Prefix Conjugation Referring to the Past in Biblical Hebrew Prose", *Hebrew Studies* 40 (1999), 16. 한편 주옹-무라오까 역시 *qatal*은 과거의 시간 범주 내에서의 행동의 통일성(unity) 또는 동시성을 나타낸다면, *yiqtol*은 미래의 시간 체계 속에서의 다수성 또는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38) *Ibid.*, 25-26.39) Agustinus Gianto,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Israel Oriental Studies* XVIII (1998), 94-95.



나타내는 의무 양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sup>40)</sup> 다시 말하면, *qatal* 동사를 포함하여 모든 히브리어 동사 형태가 양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안토가 제시한 가설들이 모든 히브리어 본문에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안토가 기여한 점은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양태와 상 그리고 시제 개념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한편, 하타브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요스텐과 유사하게 성경 히브리어 구문론에서 *yiqtol*과 *weqatal* 동사들이 양태의 의미로 쓰인다는 가설을 논증하고 있다.<sup>41)</sup> 하타브의 분석의 특징은 성경 히브리어의 동사 체계 내에서 상(aspect)과 양태(modality)의 다양한 속성들을 비교적 단순한 틀로써 기술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요스텐의 가설과 비교했을 때, 요스텐의 범주는 *qotel*을 직설법(indicative)의 범주로 귀속시킨 반면, 하타브는 그것을 progressive aspect로 인식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은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 인지 양태와 의무론적 양태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우리는 인지 양태(epistemic modality)는 발화시에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화자가 인지하는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의무론적 양태(deontic modality)는 명령, 허가, 의무, 요구, 약속 등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의지(intention/belief of the speaker)를 반영해 준다고 보았다.<sup>42)</sup> 이러한 양태의 특성을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 범주 구분을 시도한 학자들이 있는데 한 예로 워렌(A. Warren)을 들 수 있다. 워렌은 시편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개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설명한다.<sup>43)</sup>

Epistemic system	<i>x-yiqtol</i> , <i>weqatal</i> , <i>lo tiqtol</i>
Deontic system	imperative, cohortative, jussive, <i>al-tiqtol</i>

워렌은 그의 논문에서 *yiqtol*과 *weqatal*의 기능이 인지(epistemic) 양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명령형과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

40) 필자의 견해로는 다양한 양태 범주 가운데 히브리어 동사 체계는 인지 양태(epistemic)와 의무(deontic) 양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41) G. Hatav,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34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7), 29.

42) 장성길, “의사소통행위 이론에 기초한 선지서 본문의 정보구조에 관한 소고”, 『구약논집』 2 (2006), 14.

43) A. Warren, “Modality, Reference and Speech Acts in the Psalms”, Ph.D. thesis (Cambridge University, 1998), 59, 70.

는 동사의 경우에 의무(deontic) 양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sup>44)</sup> 정리하면,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 양태는 발화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나 필연성 또는 화자가 청중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요구 또는 명령이나 화자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 3.2. 시제 · 상 · 양태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히브리어 동사의 이해

앞서 지적한 대로 최근의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대한 연구 동향은 ‘시제’와 ‘상’ 이론 가운데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의 특성에 따라서 시제 · 상 · 양태의 속성을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절대적 상’ 이론보다는 ‘상과 시제’ 또는 ‘상과 양태’ 개념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동사 체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sup>45)</sup> 한 예로, 아놀드(B. T. Arnold)와 초이(J. H. Choi)가 쓴 히브리어 구문론(Hebrew Syntax)의 경우, 상과 양태 개념을 적용하여 히브리어 동사의 구문론의 특성을 설명한다.<sup>46)</sup> 한편, 성경 히브리어 정동사(finite verb)의 기능에 대한 그롭(D. M. Gropp)의 가설에 따르면, 히브리어 정동사들 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시간적이며(temporal), 부분적으로 상적(aspectual)이고, 부분적으로 양태적(modal)이라고 주장한다.<sup>47)</sup> 한편, 헨델은 1996년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특성에 관한 소논문에서 시제(tense), 상(aspect), 그리고 서법(mood)의 개념 위에 상황(situation)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덧붙여서 네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문법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sup>48)</sup> 헨델에 따르면,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의 세부 범주는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의미론적 구분이며, 크게 두 가지 범주(인식론적 양태와 의무론적 양태)로 세분화하고 있다.<sup>49)</sup>

44) Ibid., 78-91.

45) E. J. Revell, “The System of the Verb”, 2-3;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63.

46) B. T. Arnold and J.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6-67.

47) D. M. Gropp, “The Function of the Finite Verb”, 54-55. 그롭의 모델의 특징은 *qatal*과 *yiqtol*을 비-의지적(volitive) 성분들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며, *yiqtol/weyiqtol* 동사는 동시에 의지적(volitive)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weyiqtol*을 간접적 의지로 분류한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48) R. S. Hendel, “In the Margins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ituation, Tense, Aspect, Mood”, *ZAH* 9:2 (1996), 156-158, 180-181.

49) Ibid., 169.

deontic: perfect	unreal or polite/ real + perfectivity
Imperfect	real or real + imperfectivity
volitive.	real or real + perfectivity
epistemic: perfect	unreal or real-remote
Imperfect	real

헨델의 모델에 따르면, 의무론적(deontic) 양태는 기대, 명령, 허용, 또는 의무를 진술하는 화자의 의지(will)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지(epistemic)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수준이나 견해를 반영한다. 그런데 위의 범주 구분에서 나타나는 가설의 특징은 양태 개념을 상(aspect)의 범주 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real/unreal 형태로 부분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페캄(B. Peckham)은 1997년에 기고한 논문에서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는 시제와 양태의 범주로 해석된다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였다.<sup>50)</sup> 페캄은 히브리어 동사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세 가지 어순에 적용하여 동사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다.<sup>51)</sup>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어순, 통사적 문맥(syntactic context)에 따라 절의 형태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sup>52)</sup> 즉, 시제를 결정하는 단서가 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sup>53)</sup> 페캄에게 있어서 시제와 양태는 각각 상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qatal*과 *yiqtol*은 절의 형태에 따라서 양태 또는 시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sup>54)</sup> 무엇보다 동사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절의 형태에 의존한다는 페캄의 가설은 매우 독특한 주장이다. 한편, 1998년 젠트리(P. J. Gentry)는 또 하나의 동사 체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sup>55)</sup> 일반적으로 양태의 범주를 인식론적 및 의무론적 범주로 구분한 데 반하여 젠트리는 다음과 같이 단언적(assertive) 양태와 투영적(projective)<sup>56)</sup> 양태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

50) B. Peckham, "Tense and Mood in Biblical Hebrew", *ZAH* 10:2 (1997), 139-168.  
 51) Consecutive (*wayyiqtol* or *weqatal*), disjunctive (*waw+x+qatal* or *yiqtol*), paratactic (*waw+0+qatal* or *yiqtol*, i.e. *weqatal/weyiqtol*), conjunctive (a conjunction), and asyndetic (without *waw* or a conjunction). 참조하라. B. Peckham, "Tense and Mood", 142-143.  
 52) *Ibid.*, 168.  
 53) *Ibid.*, 139-140.  
 54) *Ibid.*, 155, 159-160. 페캄의 설명에 따르면, *qatal*과 *yiqtol*은 각각 과거 혹은 현재 직설법을 나타내며, 미래 직설법이나 양태 개념(가정법, 기원법, 조건법)은 특정한 구문론적 조건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55) P. J. Gentry, "The System of the Finite Verb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39 (1998), 7-39.  
 56) 일반적이지 않은 투영적(projective)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직설법으로 쓰이는 경우의 단언화행(assertive speech act)과 구별되는, 소위 말하는 의무 양태에 속하는 범주라고 말할 수 있다.

	Assertive Modality		Projective Modality	
	Tense-Aspect		Aspect	
-	Perfective ±past	Imperfective ±non-past	perfective	imperfective
Affirmative (non-sequence)	[x] <i>qatal</i>	[x] <i>yiqtol</i>	<i>yiqtol</i> (short) <i>yiqtolēhū</i>	<i>yiqtol</i> (long) <i>yiqtolennū</i>
Negative	𐤀𐤓 + <i>qatal</i>	𐤀𐤓 + <i>yiqtol</i>	𐤀𐤓 + <i>yiqtol</i> -S	𐤀𐤓 + <i>yiqtol</i> -L
sequential	<i>wayyiqtol</i>	<i>wəqatal</i>	<i>wəyiqtol</i> -S	<i>wəyiqtol</i> -L/( <i>wəqatal</i> )
	narrative		-	
	conversation			

Gentry의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범주<sup>57)</sup>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쟌트리의 가설은 시제와 상을 함께 적용한 것인데 *qatal*은 과거와 완료가 반영된 반면에 *yiqtol*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구조 속에 미완료 상이 나타난다. 한편, 쟌트리의 가설의 특징은 절의 첫 번째 위치에 오는 동사는 투영적인 반면, 절의 첫 번째 위치에 오지 않는 동사들은 단언적이라 주장하는 것이다.<sup>58)</sup> 그러나 쟌트리의 가설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예를 들어, *yiqtol*의 경우 완료(perfect) 상에서 투영적인 속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상기한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범주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점차 시제·상·양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히 니카치(A. Niccacci)와 쿡(J. A. Cook) 그리고 앤드라슨의 연구는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쿡은 문법화와 언어학적 경로(path) 이론에 기초하여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이해에 대한 나름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sup>59)</sup> 쿡의 가설은,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는 상적(aspectual)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배경에서 히브리어 동사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통시적으로 추론해 간다.<sup>60)</sup> 하나의 가설적 결론으로 *wayyiqtol*과 *qatal*은 결과적

57) P. J. Gentry, "The System of the Finite Verb", 39.

58) Ibid., 35.

59) J. A. Cook, "The Hebrew Verb: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ZAH* 14:2 (2001), 117-143.

60) J. A. Cook,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2002), 203-209. 참고로, 쿡의 진화적 시나리오는 크게 결과론적(resultative) 경로와 미완료적(imperfective) 경로로 나뉜다. 참조하라. J. A. Cook,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215, 269.

궤도(resultative path)에서 완료상(perfect aspect)으로, 다시 완료(imperfective)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시제로 변천해 나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sup>61)</sup> 또 다른 한편, *yiqtol*과 *qotel*은 미완료적 경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진행(progressive)의 의미가 미완료 상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현재 시제로 고착되었다는 가설이다. 특별히 *yiqtol*은 미완료 상의 의미와 함께 미래 시제와 양태의 범주로도 쓰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sup>62)</sup> 그런데 경로 이론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히브리어의 문법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천해 온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경로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를 나타낼 것이 분명하다.<sup>63)</sup> 앤드라손에 따르면, 쿡은 무엇보다 결과론적(resultative) 경로와 미완료적(imperfective) 경로가 일련의 시간적 문맥(temporal context)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sup>64)</sup> 한편, 존 쿡이 자신의 학위논문(The Hebrew Verb [2001])에서 제시한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의미론적 모델이 갖는 또 하나의 약점은 왜 *weqatal*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다. 아마도 쿡의 논리에서는 *weqatal*은 *qatal*과 동일한 동사 변화(conjugation)에 속한다고 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sup>65)</sup> 그러나 만약 *qatal*과 *weqatal*이 같은 범주라고 가정한다면 공시적 모순(synchronic paradox)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상의 개념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완료적이면서 동시에 미완료적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쿡의 논리에 따라서 *qatal*이 완료상이라면 *weqatal* 역시 완료상으로 정의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맛소라 본문에서 *wayyiqtol* 동사가 언제나 단순 과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며 문맥에 따라서는 현재의 시간 속에 화자의 심경이나 확신을 표현하는 양태적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시 16:9; 사 50:7 등). 최근에 노타리우스(T. Notarius)의 연구에 따르면, *weqatal* 동사는 예견적 미래의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sup>66)</sup> 노타리우스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weqatal*의 ‘예견적 미래’의 기능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7)</sup> 따라서 *weqatal*은

61) J. A. Cook, “The Finite Verbal Forms in Biblical Hebrew Do Express Aspect”,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30 (2006), 32-33.

62) Ibid., 34.

63) A. Andrason,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in Light of Grammaticalization: The Second Generation”, *Hebrew Studies* 53 (2011), 38.

64) Ibid., 36-37.

65) J. Cook, “The Hebrew Verb: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136.

66) T. Notarius, “Prospective Weqatal in Biblical Hebrew: Dubious Cases of Unidentified Category”, *JNSL* 34:1 (2008), 49-52.

67) 만약 *weqatal*의 의미를 상(aspect) 이론에서 본다면 습관적(habitual) 또는 계속적(repetition)의 의미로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의 가설처럼 *qatal*과 동일한 범주라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적 문법 장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러한 최근의 논의들은 적어도 히브리어 동사 체계가 시제 또는 상의 단일 체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시제와 상의 관점에서 보면, *qatal/wayyiqtol*은 과거 시제와 완결상으로 그리고 *yiqtol/weqatal*은 비과거 시제와 미완결 상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 양태 개념이 적용된다면 *yiqtol*과 *weqatal* 동사의 경우 시제와 상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인지/존재 양태(epistemic/ existential modality) 또는 의무/역동적 양태(deontic/ dynamic modality)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예레미야 30:19d-e의 예를 살펴보자.

(렘 30:19d-e)                   וְהַכְּבֹדִים לֹא יֵצְעֶרּוּ ...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두 소절은 1인칭 화법으로 선포된 *weqatal* 동사와 3인칭 화법의 *yiqtol* 동사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19절 d행에 쓰인 *weqatal* 동사 וְהַכְּבֹדִים(베히크바드팀)은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의무(deontic) 양태의 특성을 나타내며, 19절 e행은 waw-x-*yiqtol* 동사 יֵצְעֶרּוּ(이쯔아루)를 통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발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인지(epistemic) 양태의 범주가 나타난다. 이처럼 시제와 상의 차원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양태적 의미가 또 다른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iqtol*과 *weqatal*의 경우, 시상(tense-aspect)이나 양태냐를 묻는다면 필자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시제·상·양태의 통합적(holistic)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언어 형태는 단지 하나의 의미(또는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본래 다차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동사 형태가 시제·상·양태의 속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분석해보면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의 문법적 장치가 동시에 동일한 가치의 현저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텍스트 내에서 담화의 성격에 따라 시제나 상 또는 양태의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범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68) Jussive, imperative, 그리고 cohortative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지적(volitive)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조(emphasis)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시제를 고집하여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과거와 비-과거로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시편이나 선지서 본문을 해석할 때에 해석자는 시제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레그트(Lénard de Regt)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qatal*은 객관적 사실 또는 명제를 진술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에 쓰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현재와 미래(예언적 과거)에 대해서도 쓰이고 있다.<sup>69)</sup> 반면에 *wayyiqtol*은 산문체 내러티브(prose narrative) 본문이나 담화체(discourse)의 문장 속에서 일련의 연속적 사건이나 논리적 사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보를 배열할 때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wayyiqtol*은 내러티브 본문을 지탱하는 하나의 지주로서 주도적인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된다.<sup>70)</sup>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yiqtol*과 *waw*-도치 *weqatal*의 양태적 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yiqtol*이 비-과거 미완료 상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고 묻는다면 상기한 대로 필자는 *yiqtol*의 주 기능은 양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있다고 말한다.<sup>71)</sup> 그러나 시제와 상의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yiqtol*은 현재나 미래의 시제에 속하며 미완료 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yiqtol* 동사가 언제나 현재 또는 미래 시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과거 시제의 문맥에서 *yiqtol*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양태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본문 해석이 불가능하다. 주옹-무라오까(Joüon-Muraoka) 역시 히브리어 동사 체계는 시제와 양태(modality)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보았다.<sup>72)</sup> 그런데 *yiqtol*이 과거 시제에 쓰이는 경우에 반복적, 습관적, 또는 지속적 동작의 시상만을 표현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15:1 상반절을 통하여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69) Lénard de Regt, "Hebrew Verb Forms in Prose, and in Some Poetic and Prophetic Passages: Aspect, Sequentiality, Mood, and Cognitive Proximity", *JNSL* 34/1 (2008), 92-100.

70) *Ibid.*, 95-100. 물론 상의 관점에서 보면 *wayyiqtol*은 완결 상(complete aspect)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레그트는 내러티브 문장에 한정하여 *wayyiqtol*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매우 독특한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텍스트 상에서 내용의 흐름이나 주제에 가깝거나, 화자에게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정보일수록 *qatal*보다는 *wayyiqtol*을 쓴다고 주장한다.

71)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서 *yiqtol*과 *weqatal* 동사를 인지 양태의 범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론적 및 역동적 양태로 분류할 것인지를 판단은 전적으로 문맥에 달려 있다.

72) P. 주옹, T.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385, 398-408.

אֶזְשִׁיר־מִשָּׁה וּבְנֵי יִשְׂרָאֵל אֶת־הַשִּׁירָה הַזֹּאת לַיהוָה  
וַיֹּאמְרוּ לְאֹמֶר אֲשִׁירָה לַיהוָה

첫 소절의 *יִשְׂרָאֵל* ובְנֵי יִשְׂרָאֵל (아즈 야쉬르 모쉐 우브네이 이스라엘)에서 야쉬르는 *yiqtol* 형태를 쓰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문의 콘텍스트는 단순과거 문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헨델이 제시한 상대시제를 적용한다 해도 *yiqtol*이 쓰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화자의 초점이 시제나 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그들 각자의 자발적 의지로 노래하였음을 강조하는 역동적 양태의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 *אֲשִׁירָה לַיהוָה* (아쉬라 라아도나이)로 마무리할 때에도 *wayytiqtol* 형태 뒤에 *yiqtol*을 연결시킨 것은 시제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내기 어려우며 화자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스스로의 내적인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의무 양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의 *yiqtol*과 *weqatal*은 시상적(*tense-aspect*)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서 양태 의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모든 정동사가 양태의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특별히 *qatal* 동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qatal*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건을 보도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적(*poetic*) 담화 속에서 진술되는 명제에 대하여 화자가 단언(*assertive*)하는 양태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73)</sup>

#### 4. 나오는 말

성경 히브리어의 동사 체계는 어떠한 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성경을 번역하고 주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중반까지 성경 히브리어 연구에 있어서 주된 관점은 시제 중심 또는 상 중심

73) 기본적으로 *qatal* 동사는 직설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적 담화체에서 인지 또는 의무 양태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5에 쓰인 세 가지 *qatal* 동사들은 *yiqtol-qatal*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יָדַעְתִּיךָ* (예다티하)에서는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화자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며, *הִקְדַּשְׁתִּיךָ* (히크다스티하)와 *נִתְחַיֶּךָ* (네타티하)에서는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화자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으로 동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yiqtol*, *qatal*, *wayyiqtol*, *weqatal*과 서술적인(predicative) *qotel* 형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히브리어 동사는 문장 형태에 있어서 과거형과 비과거형을 갖추고 있고, 내러티브 직설법 문장에 있어서 *qatal/wayyiqtol*은 과거시제를 그리고 *yiqtol/weqatal*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qatal/wayyiqtol*은 완료 상을 그리고 *yiqtol/weqatal* 동사는 미완료 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문법적 장치만으로는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이해에 있어서 양태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 각각의 문법적 성분들의 기능은 발화수반행위와 양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sup>74)</sup> 특별히 양태 범주들 가운데 인지(epistemic) 양태와 의무/역동적(deontic/dynamic) 양태를 통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앞으로 *qatal*의 의미론적 및 화용론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고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법적-구문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담화(discourse) 차원에서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성경 히브리어 본문의 초점을 밝히는 연구에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75)</sup>

#### <주제어>(Keywords)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인지 양태, 의무 양태, 시제, 상, 성경 번역.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Tense, Aspect, Bible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74)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념에 기초한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54 (2010), 1-34를 참조하라.

75) 지면의 한계로 함께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써 담화 차원에서의 논의는 니카치의 가설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 참조하라. A.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JSOTSup 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참고문헌>(References)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파주: 태학사, 2004.
- 김정오, “영어의 시제와 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2013), 503-510.
- 김준근, “교과서에 나타난 시제, 상 체계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24 (2014), 3-24.
- 민현식,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시제, 상, 서법의 3차원 해석론”, 『국어교육』 69 (1999), 15-42.
- 박진호, “시제, 상, 양태”, 유현경 외 6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파주: 태학사, 2011, 289-322.
- 안기섭, 송진희, “중국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우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17 (2011), 41-73.
- 윤병달, 『언어와 의미』, 서울: 동인, 2009.
- 이건환, “한국어의 양상표현”,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이기갑, “양상의 유형론”,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이상도, 『중국어 문법』, 서울: 동방미디어, 1997.
-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12.
- 이숙현, 심을식, “프랑스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이숙현, 심을식, “프랑스어 양상표현”,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이 정, “서법의 정의와 분류”, 『말』 3 (1978), 81-96.
- 이효상,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1995), 207-250.
- 장성길, “의사소통행위 이론에 기초한 선지서 본문의 정보구조에 관한 소고”, 『구약 논집』 2 (2006), 9-34.
-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념에 기초한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54 (2010), 1-34.
- 정규영, “아랍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조경화, 송경안, “독일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조경화, 송경안, “독일어의 양상표현”,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주용, P., 무라오까,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 허성태, 임홍수, “러시아어의 시제와 상”, 송경안 외, 『언어유형론 3: 시제와 상/양상/조동사/수동태』,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 Dietrich, Rainer, 『독일어에서의 양태성』, 권영숙 역,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0.
- Kearns, K., 『의미론의 신경향』, 이영현, 유재근 역, 서울: 한국 문화사, 2003.
- Klein, W., 『언어와 시간』, 신수송 역,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1.
- Andrason, A.,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in Light of Grammaticalization: The Second Generation”, *Hebrew Studies* 53 (2011), 19-51.
- Arnold B. T., and Choi, J. H.,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hat, S. D., *The Prominence of Tense, Aspect, and Moo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9.
- Blau, J.,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nd ed., *Pontae Linguarum Orientalium NS X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6.
- Blau, J., *Phonology and Morphology of Biblical Hebrew: An Introduction*,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LSAWS*,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 Bybee, J. L., Perkins D. R., and Pagliuca, W.,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Bybee, J. L.,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 Comrie, B.,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Comrie, B.,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Cook, J. A., “The Hebrew Verb: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ZAH* 14:2 (2001), 117-143.
- Cook, J. A.,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 2002.

- Cook, J. A., “The Finite Verbal Forms in Biblical Hebrew Do Express Aspect”,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30 (2006), 21-35.
- Dahl, Ö., ed.,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 of Europe*, Berlin: Moulton de Gruyter, 2000.
- DeCaen, Vincent, “Ewald and Driver on Biblical Hebrew Aspect: Anteriority and the Orientalist Framework”, *ZAH* 9:2 (1996), 129-151.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3rd ed., Oxford: Clarendon 1982.
- Eskhult, M., *Studies in Verbal Aspect and Narrative Technique in Biblical Hebrew Prose*, Studia Semitica Upsaliensia 12, Uppsala: Almqvist & Wiksell, 1990.
- Ewald, H.,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Old Testament*, James Kennedy, trans., Edinburgh: T&T Clark, 1987.
- Gentry, P. J., “The System of the Finite Verb in a Classical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39 (1998), 7-39.
- Gianto, A., “Mood and Modality in Classical Hebrew”, *Israel Oriental Studies* XVIII (1998), 183-198.
- Goldfajn, Tal, *Word Order and Tim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OT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ropp, D. M., “The Function of the Finite Verb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Hebrew Annual Review* 13 (1991), 45-62.
- Hatav, G.,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34,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7.
- Heller, R. L.,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Constellation: An Analysis of Classical Hebrew Prose*,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4.
- Hendel, R. S., “In the Margins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ituation, Tense, Aspect, Mood”, *ZAH* 9:2, (1996), 152-181.
- Joosten, J., “Biblical Hebrew weqātal and Syriac hwā qātel Expressing Repetition in the Past”, *ZAH* 1 (1992), 1-14.
- Joosten, J., “The Long Form of the Prefix Conjugation Referring to the Past in Biblical Hebrew Prose”, *Hebrew Studies* 40 (1999), 15-26.
- Joosten, J., “The Predicative Participle in Biblical Hebrew”, *ZAH* 2:2 (1989), 128-159.

- Kruiłowicz, J. K., *Studies in Semitic Grammar and Metrics*, Warsaw: Polska Akademia Nauk, 1972.
- Kruiłowicz, J. K., “Verbal Aspect in Semitic”, *Orientalia* 42:1-2 (1973), 114-120.
- Lyons, J.,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Lyons, J.,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cFall, Lesile,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Almond Press, 1982.
- Niccacci, A.,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W. G. E. Watson, trans., JSOTSup 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Notarius, T., “Prospective Weqatal in Biblical Hebrew: Dubious Cases of Unidentified Category”, *JNSL* 34:1 (2008), 39-55.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2001.
- Peckham, B., “Tense and Mood in Biblical Hebrew”, *ZAH* 10:2, (1997), 139-168.
- Rainey, A., “The Ancient Hebrew Prefix Conjugation in the Light of Amarnah Canaanite”, *Hebrew Studies* 27 (1986), 4-19.
- de Regt, Lénard, “Hebrew Verb Forms in Prose, and in Some Poetic and Prophetic Passages: Aspect, Sequentiality, Mood, and Cognitive Proximity”, *JNSL* 34:1 (2008), 75-103.
- Reichenbach, H., *Elements of Symbolic Logic*, London: Collier-Macmillan, 1948.
- Revell, E. J., “The System of the Verb in Standard Biblical Prose”, *HUCA* 60 (1989), 1-37.
- Thackston, W. M., *An Introduction to Koranic and Classical Arabic*, Maryland: IBEX Publishers, 1994.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arren, Andy, “Modality, Reference and Speech Acts in the Psalms”, Ph.D. Thesis, Cambridge University, 1998.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ality in Biblical Hebrew Verbs**

Sung-Gil Jang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that focuses on the value of modal concept. Until recently, some Hebraists insisted that the verbal system of classical Hebrew is tense-prominent, but scholars at the opposing end disputed the theory, and insisted it as aspect-prominent. In this context, some scholars suggest a new syntactic and pragmatic perspectives in the light of common understanding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 demonstrate that the value of modality is absolutely indispensable in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verbal conjugations of Biblical Hebrew: *qatal*, *yiqtol*, *wayyiqtol*, *weqatal* and *weyiqtol*. As far as the verbal system is concerned, it is true that verbal forms could carry the value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But as Joosten, Hatav, Warren, and Andrason insist, epistemic and deontic modality gives various new perspectives to solve complex issues of the *yiqtol* and waw-consecutive *weqatal* forms. I propose that deontic and epistemic modality contributes to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meaning of *yiqtol* and *weqatal*.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qatal* form, Hebraists generally advocate that the *qatal* expresses the meaning of indicative past and also the value of resultative construction, but sometimes the *qatal* conceptually could be shown to be modal, involving the remaining dominant sense of propositional/evidential modality. In this respect, I propose that the modal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mantic and pragmatic categories of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